불자 세상보기

# '어글리 코리안' 오명 언제까지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 관광의 1위가 한국인이라는 실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한국형사정책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단지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성매매에서도 한국 남성이 단연 독보적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해당 국가의 단체활동가들은 동남아 여성들 특히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 한국인을 위한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글리 코리안.'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추악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한국 남성의 성관광, 아동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 비인간적인 태도가 문제된 바 있다. 남태평양 키리바시라는 섬나라에서는 한국인 선원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여 성매매청소년을 가리켜 '꼬레꼬레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베트남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한국 여행객이 추방된 일도 있었다.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한국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매매 남성들이 음란물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적이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거절하면 약속한 돈을 안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들 성매매 남성들은 골프 투어 또는 휴가를 위해 방문한 여행객들만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 일시 방문한 사업가들,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해 체류하고 있는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이다. 왜 성매매를 하는가?

"성매매를 나만 안할 수는 없어요"

"이성적으로 성매매가 나쁜 건 원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필요악입니다."

성매매가 범죄로 규정된 국내에서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교육'이라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되는 데 교육장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다.

이들은 '밖에 나가면 지금도 버젓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속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다 잡아야지, 왜 선택적으로 단속을 해서 억울한 사람 만드느냐'라며 항의를 한다. 성매매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성매수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최소한 1회이상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변에서 성매매 해보자라고 제안할 때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혼자 깨끗한 척 한다'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혹은 '남자답지 못한 태도' 등 적대감과 따돌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예상되어 어쩔 수없다고 한다.

성구매는 남성들 간의 집단성과 결속, 연대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지여행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알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된 수입원으로 여기는 국가들의 방치, 그리고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에 의해 쓰여진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 등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매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국가들에서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값싸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 관광 산업이 번성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빈곤하고 교육 기회나 고용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마련해 주겠다는 알선업자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인신매매되고 있다.

국내에서 2007년부터 3년간 성구매 남성의 기소율은 17.3%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근 조사에서 77.7%가 '해외 성매매 관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국내에서의 처벌도 미약하고 해외에서의 성매매 역시 국내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매매 관광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아동대상의 성매매까지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남성의 성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 폭력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 행위를 사는 거래가 아니다. 동의가 있건 없건 누군가의 대상으로, 종속된 자로 취급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무력화되는 억압을 경험하는 일이다. 성판매 경험을 한 여성이나 아동이 탈성매매이후 오랜 치유과정이 필요한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는 바로 그 폭력성때문이다.

남성의 성적 향유권 뒤에 숨겨진 가난해서,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과 아동이 없기를, 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호받기를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 스페셜 올림픽과 '주리반타카'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렸다. 국내 19만명, 세계 2억 2천만 명의 지적장애인(children and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 스페셜 올림픽이 바로 그것이다.

스페셜올림픽 창설자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사랑과 자부심으로 세상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이번 2013년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의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또한 이번 세계대회는 120여 개국 3,300여명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7개의 올림픽 스포츠 종목에 참여해 기량을 펼치고, 지역, 국경, 정치적 이념, 연령, 인종 그리고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여 함께 어울리는 인류 축제의 장이었다. 이곳에서 지적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세레모니가 펼쳐졌다.

월정사 또한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헝가리선수단 3박4일 호스트타운(템플스테이) 개최,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적 개최 및 나눔과 화합을 위한 음악회' 개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경기장 방문 및 선수단 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스페셜올림픽에 국민들은 무관심하였고, 불교계의 참여 또한 부족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키워나가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교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하자면 불교계가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당장 장애인들에게 사찰 문턱은 높다. 제대로 된 장애인 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장애인 전법단을 출범하고 장애인전법도량 4곳을 지정한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하지만 불교에는 장애인이 출가해 정각을 이룬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사람으로 육안을 못 쓰는 아나율이 있다. 부처님 설법 도중 졸아 책망을 듣고, 서원(誓願)을 세워 조금도 자지 않았는데, 그 결과 안질(眼疾)을 얻어, 마침내는 두 눈을 못 보게 됐다. 육안을 못쓰는 대신, 천안(天眼)이 열려 '천안제일'이라고 칭송했다. 부처님도 그의 서원을 찬탄하며 가사를 손수 기워주기도 했다.

지적 장애인의 예를 꼽자면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주리반타카를 들 수 있겠다. 그 역시 일념의 정진해 결국 정각을 이뤄 아라한이 됐다. 몸과 정신의 장애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불교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는 너와 나,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분별심이다.

스페셜올림픽에는 'Be a Fan'이라는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페셜올림픽의 목적을 널리 알리려는 통합 캠페인이다. 불교계와 우리 국민들은 스페셜올림픽 기간만이 아닌 매일 매일 'Be a Fan' 캠페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헝가리선수단의 템플스테이를 보면서 우리 문화의 체험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과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社說

# 불상 유출 일본 반환 신중하자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는 1월 31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불상의 일본 반환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시대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성보여서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부석사 신도회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일본에 의해 부당하게 강탈당하고 그렇게 부당히 간 유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해당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불상의 과거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절대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외교는 양보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양보할 경우 국가 정체성에 타격이 있다"며 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6~8일경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 2점을 도난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일본에 돌려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반환 방침을 철회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은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를 통해 불상의 전래과정을 밝혀내는게 급선무다.

# 중앙신도회 新舊갈등, 소통만이 해답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내부 갈등으로 새해 벽두부터 소란스럽다. 지난해 이기흥 회장 체제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첫해에 불거져 나온 잡음들은 흔히 일어나는 '신구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사)연우가 운영하는 연우치과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진료를 중단했다. 현재 연우치과는 폐쇄된 상태로 '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의 관계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는 공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병원비를 내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불자 환자들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중앙신도회 산하 법인인 불교인재원은 법인 통합 건으로 시끄럽다. 실제 (사)날마다 좋은날과 통합 문제로 지난해 11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벽을 부수고 하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중앙신도회를 고소하기도 한 불교인재원은 불투명한 2013년 사업으로 10여 차례 기획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순례 행사를 4차례로 축소할 계획이다.

불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수자문단도 매끄럽지 못하다. 불자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와 사업과 활동영역이 영역이 중첩됨에도 전혀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불자연합회가 밝힌대로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새 집행부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신구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냐는 것이다. 이전 체제의 잘못이 있었다 해도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다면 그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중앙신도회 새 집행부는 이제 시작했다. 재가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반발을 줄이고 문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소통'이라는 이 시대의 명제를 꼽씹어 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교육기간 |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 교육장소 |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